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아이웨어(eyewear)에 관한 연구

김 선 영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부교수

요 약

본 연구는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아이웨어(eyewear)의 외적 경향과 특성을 고찰하여 토털코디네이션을 추구하는 현대패션에서 아이웨어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재인식하고 향후 개성적인 패션이미지 연출에 도움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내용은 먼저 선행연구와 관련문헌을 통해 아이웨어의 개념과 변천과정을 문헌 고찰하였고, 2008S/S부터 2012F/W까지 세계 4대 여성컬렉션에 나타난 아이웨어 총 303점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이웨어의 형태는 안경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자유형, 가면형, 고글형, 혼합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경형의 형태는 원형, 사각형, 다각형, 자유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림의 소재는 플라스틱 소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무테, 금속, 혼합 소재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렌즈 소재는 유리나 플라스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렌즈가 없는 경우, 가면의 형태로 원단을 사용한 경우의 순으로 나타났다. 림의 색상배합은 단색으로 구성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테 없이 렌즈의 색상만으로 이미지를 전달한 것, 2가지 색의 구성, 다양한 색상의 혼합이나 문양의 구성, 3가지 색의 구성 순으로 나타났다. 렌즈의 색상배합 역시 단색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라데이션 효과를 나타낸 것, 2가지 색상의 렌즈로 구성된 경우의 순으로 나타났다. 렌즈 색상은 화려한 원색의 색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블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아이웨어는 현대패션에서 현대적 심미성을 지닌 패션성의 가치 부각, 현대인의 익명적 가장성, 일탈과 유희의 해체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아이웨어, 패션성, 가장성, 해체성

I. 서론

현대패션에서 다양한 개성연출을 위한 토털 패션 코디네이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액세서리는 독창적 이미지 연출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액세서리가 토털 패션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 의미로 각 신체부분에 직접 쓰거나 걸거나 끼는 장식품을 지칭하나¹⁾, 현대패션에 있어 액세서리의 활용은 의상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패션 전체의 이미지를 결정하기도 한다. 특히 아이웨어(eyewear)는 인간의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인 눈에 착용하는 아이템이자 인상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얼굴과 관련된 것이다. 즉 시력교정과 보호라는 기능성은 물론 자신만의 강한 개성을 연출할 수 있는 패션성의 가치까지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안경디자이너 알랭 미클리(Alain Mikli)가 “안경은 보는 것과 보여 지는 것을 위해 존재한다.”²⁾라고 정의한바 있듯이 아이웨어는 보고자 하는 기본적인 기능과 타인에게 보여 지는 이미지 연출까지 다양한 가치를 지닌 액세서리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패션에 나타난 모자나 구두 등의 액세서리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각도에서 전개된 반면 아이웨어와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주로 패션과 연관되지 않은 안광학적인 측면에서 접근된 연구(이원진 외, 2004³⁾; 장학규, 강민수, 2002⁴⁾, 안경 디자인개발에 관한 연구(김대수, 2007⁵⁾; 김혜경, 2003⁶⁾; 민지영, 2005⁷⁾; 이길순, 2009⁸⁾), 안경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박승은, 2004⁹⁾; 이경희, 2012¹⁰⁾), 아이웨어의 컬러 트렌드 분석에 관한 연구(권경주, 2009¹¹⁾; 이현주, 2008¹²⁾; 정형호, 2005¹³⁾)만으로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아이웨어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복과 함께 다양하게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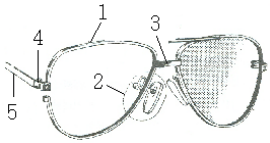
되어 나타나고 있는 아이웨어의 외적 경향과 특성을 고찰하여 토털코디네이션을 추구하는 현대패션에서 아이웨어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재인식하고 향후 개성적인 패션이미지 연출에 도움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내용은 먼저 선행연구와 관련문헌을 통해 아이웨어의 개념과 변천과정을 문헌 고찰하였고, 2008 S/S부터 2012 F/W까지 세계 4대 여성컬렉션에 나타난 아이웨어 총 303점을 고찰하였다. 아이웨어의 선정기준은 선행연구 및 관련문헌을 통해 도출된 아이웨어의 개념과 종류에 준하여 고글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패션 글라스를 중심으로 하였고, 패션컬렉션에서 독창적인 패션이미지 연출을 위해 신체 부위 중 눈에 연출된 모든 액세서리를 포함하였다. 아이웨어의 명확한 디자인 분석을 위해 디자인의 형태가 모호하거나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는 경우는 자료 선정에서 제외시켰으며, 분석에 있어 각 컬렉션의 주제나 이미지를 참고하되 의상과 연계하지 않고 아이웨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진자료는 인터넷 컬렉션 사이트인 스타일닷컴(www.style.com)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동일디자인의 경우 GAP press, Fashion news, Mode & Mode 등의 컬렉션지를 참고로 하였다.

II. 아이웨어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아이웨어의 개념과 종류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목적에서 시작된 안경은 얼굴 전체의 인상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액세서리이다. 안경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의 신체 중 눈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하는 용품으로 근시, 원시, 난시, 노안 등의 눈의 광적 이상을 교정하거나 강한 빛이나 자외선, 적외선 등의 유해방사선, 먼지, 기계적인 침해에 대해서 눈을 보호하는 물건이다.¹⁴⁾

〈표 1〉 안경의 구조

	1. 림(rim) -안경 중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렌즈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며 형태에 따라 이미지 변화를 줄 수 있다.
	2. 패드(pad) -안경 착용 시 흘러내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착용자의 코에 닿는 부분이다.
	3. 브리지(bridge) -양쪽 림을 연결하면서 안경의 중심이 되어 균형을 교정한다.
	4. 엔드 피스(end piece) -안경의 프런트와 템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5. 템플(temple) -착용자의 귀에 안경이 걸쳐지도록 하여 흘러내림을 방지하고 착용하기에 용이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안경의 구조는 크게 림(rim), 패드(pad), 브리지(bridge), 엔드 피스(end piece), 템플(temple) 부분으로 구성된다. <표 1>¹⁵⁾¹⁶⁾¹⁷⁾과 같이 렌즈를 눈앞에 고정하기 위한 안경테의 전체적인 범위를 프레임이라 하는데, 특히 테의 형태를 결정하는 테의 부분을 림이라 한다. 양쪽 렌즈를 연결하는 부분은 브리지, 그리고 귀에 걸기 위한 다리부분을 템플이라고 한다. 테의 유무에 따라서 렌즈 전체에 테가 있는 전테, 반만 테가 있는 반테, 테 없이 렌즈만으로 구성된 무테로 나눌 수 있으며, 안경테에 장식을 더하거나 다양한 디자인의 테로 감각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 금속, 플라스틱, 티타늄 등의 테의 재질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고, 타원형, 사각형, 원형, 고글형과 같은 테의 형태 등 사이즈, 재료, 형태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일반적으로 아이웨어에 사용되는 렌즈의 재질은 플라스틱과 유리이다. 플라스틱 렌즈는 잘 갈라지지 않으며 가볍고 염색하여 색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긁혀서 흔적이 나기 쉬운데 보통 하드 코팅이 되긴 하지만, 유리 렌즈보다 긁히기 쉽다는 단점을 지닌다. 유리 렌즈는 긁혀서 흔적이 남는 경우가 별로 없고 얇으며 열에 강한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플라스틱 렌즈에 비해 무겁고 깨지기 쉽기 때문에 강화 렌즈를 사용하기도 한다.¹⁸⁾










아이웨어는 목적에 따라 고글(goggles), 클래프시블 글라스(collapsible glasses), 패션 글라스(fashion

glasses)로 구분된다. 고글은 먼지나 바람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스키나 비행에서 사용되던 것이 일반화된 것이다. 클래프시블 글라스는 ‘꺾어 접는다’는 뜻으로 브리지에서 접을 수 있어 휴대에 용이한 장점을 지닌다. 패션 글라스는 액세서리로 사용하는 안경을 총칭하며 테의 크기와 디자인, 렌즈 색상으로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다.¹⁹⁾ 또 형태에 따른 아이웨어의 종류는 크게 원형, 사각형, 다각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형태에 따라 <표 2>²⁰⁾²¹⁾²²⁾²³⁾와 같이 구분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이웨어의 선택 시 가장 주의할 점은 얼굴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얼굴이 둥글고 작은 사람은 약간 각이 진 스타일을 선택하고 얼굴이 길고 마른 사람은 전체적으로 크고 둥근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무난하다.²⁴⁾ 보통 연령대나 착용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되어지나 오늘날 개성적인 패션 연출을 위해 렌즈가 없는 패션 글라스를 착용하기도 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의 아이웨어를 선택하기도 한다.

2. 아이웨어의 변천과 상징성

안경의 기원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기원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Seneca)는 도서관에서 수구의(水球儀)를 통해 문자를 확대하여 책을 읽었다고 하며²⁵⁾, 11세기 말부터 자유 상업도시로 발전한 이탈리아의

<표 2> 형태에 따른 아이웨어

구분		형태		구분		형태	
원형	폭스(fox)	여우의 눈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양쪽 끝이 올라간 모양		사각형	보스톤 (boston)	로이드 형과 같은 원형이 아니라 밑이 약간 좁아진 모양	
	로이드 (lloyd)	미국 희극배우 헤럴드 로이드가 애용한데서 붙여진 명칭이며, 두꺼운 테두리의 원형 프레임들 가진 것이 특징			웰링턴 (wellington)	플레이미 원형의 하나로 각이 작게 잡혀진 사각형 모양	
	에그 플란트 (egg plant)	둥근 형태로 레이번 (Ray ban)형이라고도 함			렉싱턴 (lexington)	각이 크게 진 웰링턴형	
	오벌(oval)	프레임이 타원형 모양			스퀘어 (square)	프레임이 사각형 모양	
	라운드 (round)	프레임이 원형으로 헤리포터형이라고도 함		다각형	육각형, 팔각형 등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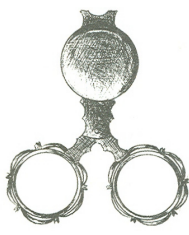
베니치아의 장인들에 의해 제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²⁶⁾ 고대 초상화 가운데 안경 쓴 모습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이탈리아의 화가 토모소 다 모데나(Tommaso da Modena)가 그린 추기경의 초상화로 <그림 1>과 같이 대못 안경이다. 대못 안경은 나무나 뿔, 혹은 뼈로 테를 만들고 수정이나 유리로 된 둥근 렌즈를 끼워 안경알 두 개를 크고 끝이 무딘 대못으로 연결시킨 것이었다.²⁷⁾ 종교화에서 성자들은 안경을 착용하거나 손에 들고 있는 영예를 부여받았는데²⁸⁾, 이는 당시 안경이 학문이나 책을 읽는 능력이라든가 당대의 실력자임을 나타내는 등 존엄이나 위엄의 상징물로 여겨짐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장시간 착용 시 불편한 단점을 지니고 있어 15세기 후반에는 가죽테 안경, 모자 안경이 출현하였고, 안경 귀에 끈을 달고 추를 늘어뜨려 안경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는 등 착용하기에 편리하게 개선되어 발전하였다.²⁹⁾ 16세기부터는 안경을 끈으로 묶던 방식에서 벗어나 튼튼한 안경다리를 달게 되어 안경을 얼굴에 고정시킬 수 있게 되었고, 소재 역시 자연물인 나무나 뼈에서 벗어나 금속, 칠 등의 소재가 사용되었다.³⁰⁾ 외알 안경이나 <그림 2>와 같이 손잡이가 달린 안경이 유행하였으며, 금, 은과 같은 귀금

속을 소재로 한 안경은 귀중품으로 취급되었고 16세기 동전에 안경이 새겨질 정도로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다.³¹⁾ 17세기에는 프레임과 렌즈 제작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 되었으며 고가의 고급 안경과 대량 소비를 위한 염가의 안경도 제작되었다. 염가 안경의 보급이 확산되자 부유층과 사교계 사람들은 한층 고가의 재료와 화려한 장식을 더한 안경을 추구하게 되어 안경은 사회적 지위와 부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나타나게 되었다. 즉 초기의 안경이 고가이고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으나, 염가 안경의 등장으로 사회적 지위의 표식이 일반화됨에 따라 한층 고가의 재료와 세련된 기교의 안경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유행하던 안경은 반사경인 <그림 3>의 퍼스펙티브 글라스(perspective glass)로 끝부분의 홈을 이용해 끈이나 리본으로 목에 걸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³²⁾

18세기에는 금, 은, 수정, 생선 가죽으로 입힌 케이스와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는 경첩이 붙은 다리 달린 안경이 등장하였다.³³⁾ 에드워드 스칼렛(Edward Scarlet)이 안경을 귀에 고정하는 안경다리, 즉 템플을 개발함으로써 실용적인 측면에서 한 단계 진보된 발전을 이룩하게 된 것이다.³⁴⁾ 또



<그림 1> 토모소 다
모데나, 1352년
(출처: <http://www.antiquespectacles.com>)



<그림 2> 손잡이 달린
안경, 1600년 경
(출처: 『안경의 문화사』,
2003, p.49)



<그림 3> 퍼스펙티브
글라스를 손에 든 신사,
17세기 초
(출처: 『안경의 문화사』,
2003, p.54)



<그림 4> 가위 안경,
18세기
(출처: <http://www.antiquespectacles.com>)



<그림 5> 외알 안경,
1881(출처: 『안경의
문화사』, 2003, 156)

손잡이가 달린 안경인 로네트(lorgnette)가 유행하여 귀족들의 오페라, 승마 관람 등에 흔히 사용되면서 유행하였고, <그림 4>와 같이 손잡이의 양 다리가 각각 코 밑으로 늘어뜨려져서 마치 코를 자르는 것과 같은 모양을 한 가위 안경이 등장하기도 하였다.³⁵⁾ 19세기에 이르러 과시적인 측면보다는 실용적인 목적에서 안경이 유행하게 되었고, <그림 5>와 같이 외알 안경인 모노클(monocle)이 남성들에게 유행하였다. 초기 외알 안경은 딱딱한 금속체가 많았고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것도 있었으나 차츰 일반화 되면서 대량생산되게 되었다.³⁶⁾ 또 안경 렌즈에서 이중 초점, 또는 삼중 초점 등의 진보된 발전을 나타냈으며, 1892년 독일, 스위스, 프랑스의 의사와 안경회사가 실용적인 콘택트렌즈의 개발에 협력하기에 이르렀다.³⁷⁾

또 아이웨어와 관련하여 선글라스의 시초는 연기로 그을려 색깔을 냈던 것이 안경을 검게 하는 최초의 수단으로 1430년 전에 중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렌즈는 시력 교정용이나 태양광선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법정에서 판관들의 눈의 표정을 가리기 위해 스모그 칼라 수정 렌즈를 사용한 것이다.³⁸⁾ 이후 1936년 미국 육군 항공단은 조종사를 위한 보안경 제작을 바슈 롬(Bausch Lomb)사에 의뢰했고,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빛의 차단이라는 의미를 지닌 ‘Ray ban aviator’ 선글라스다.³⁹⁾ 이는 현대적 개념의 선글라

스의 탄생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선글라스의 독특한 눈물 방울형태의 렌즈는 눈을 커버해서 눈부심을 막고, 최대의 시야를 확보하는데 필연적인 디자인으로 오늘날까지 선글라스의 명품으로 이어지고 있다.⁴⁰⁾ 또 바슈 롬에서 두 번째 선보인 모델은 검정 플라스틱 테의 선글라스로 일명 ‘Wayfarer’ 모델로 알려져 있으며, 이 역시 마릴린 먼로와 같은 헐리웃 스타들이 애용함으로써 20세기 패션명품으로 각인되었다.⁴¹⁾

특히 현대에 이르러 안경은 급속도의 발전을 이루며 실용적인 측면만이 아닌 개성적인 스타일 연출에 중요한 아이템으로 전개되고 있고, 다양한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유명인들을 패션아이콘으로 결정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 1961년 『티파니에서 아침을』에서 오드리 햅번(Audrey Hepburn)의 선글라스, 1999년 영화 『매트릭스』에서 미래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던 키아누 리브스(Keanu Reeves)의 선글라스, 샤넬의 수석디자이너인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의 선글라스 등 강한 인상을 전달하는 패션아이템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오늘날까지도 유행하고 있다. 즉 오랜 역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전개된 아이웨어는 존엄과 위엄의 상징, 그리고 사회적 신분 및 부의 상징물로 시작되었으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상징성보다는 기능적인 측면과 함께 자신의 개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패

선성의 가치를 지니며 다양한 패션 연출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아이웨어

1.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아이웨어의 외적 경향

눈의 보호와 기능을 도와주는 도구적, 실용적 기능과 함께 장식적인 측면, 그리고 착용자의 심리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다기능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아이웨어는 현대패션에서 다양한 디자인과 연출방법으로 착용자의 미적 감각과 독특한 개성을 나타낸다. 본 장에서는 2008 S/S부터 2012 F/W 까지 세계 4대 컬렉션인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컬렉션에 나타난 아이웨어 총 303점을 분석하였다. 작품선정에 있어 여성복 컬렉션에 한정하였으며, 이론적 배경을 통해 고찰된 아이웨어의 개념과 종류에 준하여 고글과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패션 글라스, 그리고 패션컬렉션에서 독창적인 패션이미지 연출을 위해 신체 부위 중 눈에 연출된 모든 액세서리를 포함하였다.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아이웨어를 연도 및 시즌별로 형태, 소재, 색상 배합, 장식, 착용부위 등으로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그러나 소재분석에 있어 화면, 또는 지면상에 근거하여 분석한 관계로 다양하게 개발된 신소재의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관련문헌 및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림의 소재는 금속, 플라스틱, 혼합재료로 구분하였고, 렌즈 소재는 플라스틱과 유리, 원단 등으로 구분하였다.

1) 형태

아이웨어의 형태는 크게 고글형, 패션 글라스로 지칭되는 안경형, 자유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자유

형, 가면형, 그리고 모자나 선 캡과 같이 다른 아이템과 조합되어 독특한 형상을 나타내는 혼합형으로 분류되었다. 이중 다양한 디자인으로 전개되는 안경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자유형, 가면형, 고글형, 혼합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경형의 경우 원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사각형, 다각형, 자유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일반적 형태라 할 수 있는 원형의 비중은 시즌별로 꾸준히 나타나고 있으나 사각형의 경우 다른 시즌에 비해 2012 S/S 시즌에 특히 두드러지는 특징을 나타냈다. 테의 유형은 렌즈 전체에 테두리가 있는 전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무테, 위나 아래에만 테가 있는 반테의 순으로 나타났다.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아이웨어에서 가장 부각되는 특징 중 하나가 형태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안경형의 경우 원형이나 사각형, 다각형 등 일반적인 형태 외에 아이웨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한 독창적인 디자인들이 나타났다. <그림 6>은 렌즈 없이 독창한 림의 형태로 곤충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그림 7>과 같이 박쥐날개를 연상시키는 형태, <그림 8>과 같이 토끼의 귀를 연상시키는 유머러스한 형태, <그림 9>와 같이 꽃의 형태를 활용한 것, <그림 10>과 같이 렌즈부분에 점진적인 크기 변화를 준 도트문양을 활용하여 유머러스함과 동시에 미래적인 이미지를 나타낸 것, <그림 11>과 같이 아이웨어 프론트 전면이 하나의 면으로 구성된 가운데 양쪽 눈 부분에 최소한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는 직선의 라인만을 남긴 디자인 등 다양한 형태로 독특한 이미지를 나타냈다. 이러한 유형의 경우 착용자의 인상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전체 패션의 이미지 연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 안경이라는 형태를 벗어나 자유로운 감성으로 독창적인 이미지를 연출하는 자유형의 경우 안경이라는 고정된 틀을 벗어나 자유로운 형태를 나

<표 3>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아이웨어의 외적 경향

구분		2008 S/S	2008 F/W	2009 S/S	2009 F/W	2010 S/S	2010 F/W	2011 S/S	2011 F/W	2012 S/S	2012 F/W	계	
빈도		41	28	27	26	26	24	34	25	40	32	303	
형태	고글형	3	0	0	3	0	4	8	0	0	0	18	
	자유형	12	0	6	3	3	4	0	3	0	8	39	
	가면형	4	0	0	5	2	3	5	2	0	0	21	
	혼합형	3	2	2	4	2	0	0	1	1	0	15	
	안경 형	원형	8	18	5	6	7	9	17	12	15	14	111
		사각형	10	6	9	4	5	2	2	6	22	10	76
		다각형	1	0	3	1	4	0	2	1	0	0	12
		자유형	0	2	2	0	3	2	0	0	2	0	11
	전 테	23	16	19	12	19	17	29	20	28	20	203	
	반 테	3	4	0	2	0	0	0	3	8	4	24	
무 테	15	8	8	12	7	7	5	2	4	8	76		
소재	림	금속	4	4	3	2	3	2	2	3	3	0	26
		플라스틱	22	16	16	12	16	15	27	17	27	24	192
		혼합	0	0	0	0	0	0	0	3	6	0	9
		없음	15	8	8	12	7	7	5	2	4	8	76
	렌즈	플라스틱, 유리	32	18	17	14	22	18	28	16	39	32	236
		원단	4	4	0	6	2	2	5	2	0	0	25
		없음	5	6	10	6	2	4	1	7	1	0	42
	색상 배합	림	단색	10	6	6	10	14	8	16	17	24	16
2색			6	5	2	2	3	6	8	3	6	6	47
3색			0	4	0	0	0	0	2	0	1	0	7
혼합			10	5	11	2	2	3	3	3	5	2	46
없음			15	8	8	12	7	7	5	2	4	8	76
렌즈		단색	38	22	21	24	22	22	30	2	29	28	256
		2색	0	2	0	0	0	0	0	0	3	0	5
		그러레이션	3	4	6	2	4	2	4	5	8	4	42
렌즈 색상	블랙	6	8	9	10	10	8	12	2	17	18	100	
	블루	3	0	0	0	0	0	0	0	2	0	5	
	레드	0	0	0	2	0	3	2	2	3	2	14	
	그린	1	0	0	1	0	0	0	0	2	0	4	
	옐로우	3	0	0	0	0	0	2	0	2	2	9	
	브라운	10	4	3	3	3	3	2	8	5	3	44	
	그레이	13	10	5	4	11	6	15	6	4	7	81	
	없음	5	6	10	6	2	4	1	7	5	0	46	
장식	장식 있음	21	4	20	3	2	4	0	2	5	3	64	
	장식 없음	20	24	7	23	24	20	34	23	35	29	239	
착용 부위	눈	41	28	27	23	24	21	27	24	38	32	285	
	머리, 이마 등 기타부위	0	0	0	3	2	3	7	1	2	0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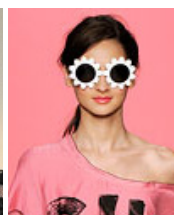
<그림 6> Park Choon Moo, 2011 F/W
(출처: <http://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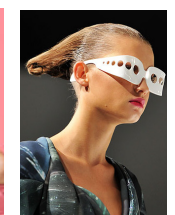
<그림 7> Anne Sofie Back, 2010 F/W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8> Perter Jensen, 2012 S/S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9> Cheap & Chic, 2010 /S
(출처: <http://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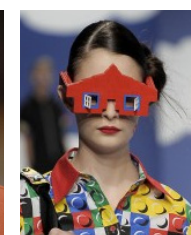
<그림 10> Hussein Chalayan, 2009 S/S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1> Vivienne Westwood, 2009 S/S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2> Under cover, 2008 S/S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3> Jeal Charles de Castelbajac, 2009 S/S
(출처: <http://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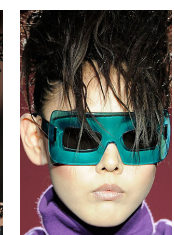
<그림 14> Hussein Chalayan, 2010 F/W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5> Valentino, 2010 S/S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6> Valentino, 2009 F/W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7> Marc Jacobs, 2009 F/W
(출처: <http://www.style.com>)

타냈다. 자유형은 2008 S/S 시즌에 가장 많은 비중으로 나타났으나 감소추세를 보인다 2012 F/W 시즌에 다시 증가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고자하는 현대인의 스타일 연출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2>와 같이 안경과 고글의 형태가 혼합되고 렌즈부분에 교차되는 선들로 해체적인 이미지를 나타낸 것, <그림 13>과 같이 주먹의 형태를 아이웨어로 전환시키거나, <그림 14>와 같이 캘리그래피된 문자의 형태를 이용한 아이웨어까지 독특한 감각을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그림 15>, <그림 16>과 같이 가면형태로 표현된 아이웨어는 가장성이라는 가면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신비스러운 이미지까지도 연출하였으며, <그림 17>과 같이 안경의 형태이지만 고무재질과 같이 안면에 부착되어 평면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킨 경우 가면과 유사한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특히 스타일간의 경계가 해체되어 각종 스포츠

아이템의 요소가 패션과 접목되어 나타나는 가운데 <그림 18>과 같이 고글을 이마에 연출시켜 스포티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도 하고, <그림 19>와 같이 스킨스쿠버의 수경을 빅 사이즈의 헤어피스와 함께 연출시켜 의외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 아이템간의 융합을 통해 표현되는 혼합형의 경우 <그림 20>과 같이 마치 선루프가 달린 것처럼 모자의 채양 부분에 달린 렌즈는 가변적인 공간감을 주며 모자와 아이웨어가 융합된 독특한 형태를 나타냈고, <그림 21>과 같이 모자의 캡 부분에 비치는 소재를 이용해 렌즈의 기능을 하제한 것, <그림 22>와 같이 플렉시 글라스 소재의 선바이저를 고글 형태처럼 변형하여 미래적인 이미지를 나타낸 것, <그림 23>과 같이 템플부분에 꼬아진 원단을 이용해 헤드밴드와 결합된 아이웨어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혼합형의 경우 아이웨어 본연의 기능의 넘어 모호함이라는 특성을 나타내나 융합된 패션아이템으로서 다목적, 다기능의 가



<그림 18> D&G, 2010 F/W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9> Moncler gamme rouge, 2011 S/S (출처: <http://www.w.style.com>)



<그림 20> Hussein Chalayan, 2010 S/S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21> Nina Ricci, 2009 F/W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22> Alexander McQueen, 2012 F/W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23> Stella McCartney, 2009 S/S (출처: <http://www.w.style.com>)



<그림 24> Jeal Charles de Castelbajac, 2009 S/S (출처: <http://w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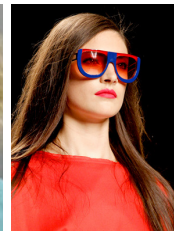
<그림 25> Alexander Wang, 2011 F/W (출처: <http://www.w.style.com>)



<그림 26> Rag & Bone, 2012 S/S (출처: <http://www.w.style.com>)



<그림 27> Marc Jacobs, 2008 S/S (출처: <http://www.w.style.com>)



<그림 28> Fendi, 2011 S/S (출처: <http://www.w.style.com>)



<그림 29> Prada, 2011 S/S (출처: <http://www.w.style.com>)

치와 함께 시각적 유희의 감정을 느끼게 하였다. 이와 같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독창적인 디자인의 아이웨어는 단순히 본다는 기능적인 측면을 넘어서 패션의 이미지를 완성시키는 패션성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소재와 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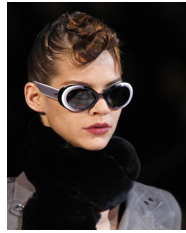
림의 소재는 소위 뿔테라고 불리는 플라스틱 소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테가 없는 무테, 금속, 혼합 소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속에 비해 플라스틱이 착색이 가능하여 다양한 컬러로의 표현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혼합 소재인 경우 <그림 24>와 같이 블랙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아이웨어 전체에 털 소재를 다시 부착하여 착용한 의상의 콘셉트와 조화를 이롭고 동시에 유희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그림 25>와 같이 복고풍의 플라스틱 림에 템플부분에만 퍼 소

재를 더해 의상과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독특한 이미지를 갖게 하기도 하였다. 또 <그림 26>과 같이 이마에 착용된 아이웨어는 플라스틱 림과 함께 템플은 신축성 있는 끈으로 귀가 아닌 머리에 고정시키는 형태로 연출되었고, <그림 27>은 리본 모양의 원단으로 구성된 림에 헤어밴드와 연결된 아이웨어로 독특한 이미지를 나타냈다. 렌즈 소재는 유리나 플라스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렌즈 없이 다양한 형태의 림으로만 구성된 경우, 가면의 형태로 원단을 사용한 경우의 순으로 나타났다.

림의 색상배합은 단색으로 구성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테가 없는 무테로 렌즈의 색상만으로 이미지를 전달한 것, 2가지 색으로 구성된 경우, 다양한 색상이나 문양으로 구성된 경우, 3가지 색상으로 구성된 경우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단색 림의 경우 렌즈 색상과의 조화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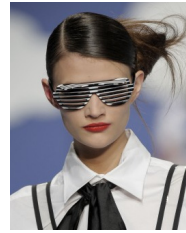
<그림 30> Missoni, 2011 S/S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31> Emporio Armani, 2008 F/W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32> Pringle of Scotland, 2012 S/S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33> Jeal Charles de Castelbajac, 2009 S/S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34> Louis Vuitton, 2009 F/W
(출처: <http://www.style.com>)

아이웨어 형태를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파악된다. 그러나 다양한 색상으로 구성된 경우 화려하고 강한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그림 28>은 윗부분은 레드와 브리지와 아랫부분은 블루를 적용하여 선명한 블루와 레드의 대비효과를 통해 강렬한 인상을 전달하였고, <그림 29>는 파스텔 톤의 블루와 블랙, 그리고 유기적인 곡선의 형태로 장식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또 <그림 30>은 양쪽 렌즈를 연결하는 브리지 부분 없이 일자형의 테에 양쪽렌즈가 부착된 독특한 형태를 나타낸다. 테의 윗부분에 다양한 색상의 스트라이프 문양과 함께 ‘wet vision’이라는 글귀를 써넣어 기발함과 장식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이고, <그림 31>은 측면에 블랙, 그레이, 화이트의 3가지 색상을 마치 그라데이션 된 것과 같은 이미지로 적용하여 장식적이면서도 모던한 이미지를 전달하였다.

렌즈의 색상배합은 단색으로 구성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라데이션 효과를 나타낸 것, 2가지 색상의 렌즈로 구성된 경우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렌즈 색상에 있어서는 블랙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고, 그레이, 렌즈가 없거나 무색인 경우, 브라운, 레드, 옐로우, 블루, 그린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렌즈 색상은 눈의 기능적이 측면을 고려하여 다양한 컬러의 단색으로 구성되거나, 그라데이션 효과를 통해 멋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낸다. 그러나 <그림 32>와 같이 레드와 그린의 2가지 색

상으로 렌즈가 구성되어 독특한 이미지를 전달하기도하고, <그림 33>과 같이 렌즈 전체에 흑백의 스트라이프 문양이 적용되어 본다는 일차적인 기능보다는 장식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그림 34>와 같이 레드 컬러의 렌즈 위에 블랙 렌즈가 덧대어져 이중의 효과를 갖도록 한 것도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아이웨어에 있어 전면부에 해당하는 림과 렌즈의 소재, 색상 역시 기발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개성적인 이미지 연출을 위한 도구이자 토탈코디네이션을 결정짓는 중요 아이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이웨어 각 부분에 적용된 다양한 소재와 색상은 고글형, 안경형, 자유형, 가면형, 혼합형으로 구분되는 아이웨어의 형태를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3) 장식 및 착용부위

아이웨어를 구성하는 림과 템플, 렌즈의 다양한 색상과 소재만으로도 개성적인 디자인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디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비즈 장식이나 부가적인 장식물을 통해 장식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경우도 나타났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특히 2008 S/S와 2009 S/S 시즌에 부가적인 장식물을 표현한 경우가 두드러져 특징을 나타냈으며 다른 시즌에는 부가적인 장식물보다는 아이웨어의 형태나 소재, 색상에 중점을 두어 전개되고 있는 추세를 나타냈다. <그림 35>는 의상과 동일한 색상의 폭스형태 아이웨어 전체에



<그림 35> Moschino, 2009 S/S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36> Marc Jacobs, 2008 S/S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37> Michael Van Der Ham, 2012 S/S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38> House of Holland, 2009 S/S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39> Anne Sofie Back, 2009 S/S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40> Richard Nicoll, 2009 F/W
(출처: <http://www.style.com>)

다양한 컬러의 비즈를 콜라주하여 장식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이와 같이 렌즈 전체를 감싸는 전 테에 화려한 장식을 추가하는 것은 화려한 장식적 이미지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아이웨어의 형태를 부각시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6>은 렌즈 외곽선을 따라 꽃 모티브의 레이스를 콜라주한 것이고, <그림 37>은 장난스러운 붓 터치와 같은 프린트를 통해 단조로운 아이웨어에 생기를 불어 넣고 유머러스한 이미지를 전달하며, <그림 38>과 같이 윗부분에 원색의 꽃 장식을 더한 아이웨어는 원형의 렌즈형태와 함께 귀엽고 소녀 같은 이미지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림 39>와 같이 렌즈 아랫부분에 주얼리 장식을 매달거나, <그림 40>과 같이 망사소재로 된 아이웨어 아랫부분에 가터벨트에 부착되는 밴드를 달아 독특한 장식성과 함께 아이웨어 대한 고정관념을 새롭게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와 장식으로 아이웨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 착용부위 역시 눈 부위에 착용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그림 18>, <그림 19>, <그림 26>와 같이 머리카락에 연출하거나 긴 줄을 이용해 목걸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출하는 등 감각적인 패션 감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출방식은 보기 위한 기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패션연출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작용한 것으로 개성적인 스타일 연출의

한 방법이라 하겠다.

2.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아이웨어의 내적 특성

과거 아이웨어가 지닌 가치는 기능적 실용성과 함께 존엄이나 위엄, 지식의 표식이자 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아이웨어가 표현하고 있는 특성은 과거 아이웨어가 지닌 특성과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측면을 나타낸다. 기능적 실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이웨어는 과거와 현재 모두 공존하는 특성이다. 아이웨어의 일차적인 기능, 즉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아이웨어의 착용은 아이웨어가 지닌 고유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존엄과 위엄의 표식이자 부의 상징물로 존재했던 아이웨어는 오늘날 고정관념을 넘어선 독특한 디자인과 연출방법으로 다채로운 이미지를 연출하는 패션 아이템으로 전환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아이웨어가 본다고 하는 일차적 기능의 역할을 넘어 타인에게 보여 지는 것으로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창조하는 가치 있는 아이템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앞 장에서의 고찰을 통해 아이웨어는 현대패션에서 개성적인 이미지 연출을 위한 패션아이템으로서 다양한 디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외형과 다채로운 색상, 장식

적 디테일들로 표현된 아이웨어는 단순한 액세서리의 차원을 넘어 패션의 본질로서 현대적 심미성을 지닌 패션성의 가치를 부각시켰다. 또 짙은 렌즈 색상이나 가면형태로 표현된 아이웨어는 가장된 자아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내면과 익명성의 의지를 반영하였고, 형태의 왜곡과 변형, 자유로운 연출방식, 이질적인 소재 등을 통해 일탈과 유희의 해체적 특성을 나타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능적 실용성의 가치는 과거와 현재 모두 아이웨어가 지닌 공통의 특성으로 본 장에서는 과거와 다른 의미 변화를 지닌 아이웨어의 내적 특성을 현대적 심미성을 지닌 패션성의 가치 부각, 현대인의 익명적 가장성, 일탈과 유희의 해체성으로 유형화하였다.

1) 현대적 심미성을 지닌 패션성의 가치 부각
 의복뿐 아니라 현대사회 전반에 걸쳐 패션이라는 키워드가 반영되고 있을 만큼 패션은 이제 현대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오랜 역사를 통해 의복과 장신구, 헤어, 메이크업 등 인간 신체 전반에 행해지는 모든 장식은 전체적인 조화와 이미지를 형성하는 토탈 패션으로서의 개념으로 패션의 정신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⁴²⁾ 패션컬렉션에 나타나는 아이웨어는 의상과 함께 연출되는 부수적인 액세서리로서, 특히 얼굴 부위에 착용되면서 시선을 이끄는 유인자극이자 패션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 안경형태에서부터 고글형태, 가면형태, 모자나 헤어밴드와 같은 아이템과 혼합된 형태, 기존 아이웨어의 형태를 벗어나 디자인 특유의 감성과 재해석으로 왜곡되고 변형된 자유로운 디자인 형태에 이르기까지 아이웨어의 독특한 형태는 패션스타일을 결정짓는 하나의 요소로 패션성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재에 대한 다양한 시각, 블랙이나 그레이 외에 화려한 원색의 컬러로 표현되는 렌즈

의 색상 및 다채로운 장식요소 역시 패션성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며, 착용자의 개성과 감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겠다. 즉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시즌별로 다양한 형태, 소재, 색상, 장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아이웨어는 단순한 액세서리의 개념을 넘어 패션의 조형적인 한 부분으로 존재하며 끊임없이 변하는 패션의 속성과 개성의 욕구를 입증한다고 하겠다. 샤넬(Chanel)은 선글라스 컬렉션만을 위한 영상을 선보이며 아이웨어야말로 패션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분야로 브랜드 코드를 반영하고 있으며 의상을 보다 세련되게 완성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스타일을 완성시키는 중요 수단임을 확인시켜 주었다.⁴³⁾ 즉 아이웨어는 패션의 본질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라 하겠다. 아이웨어라는 간단한 소품하나만으로 개인은 물론 브랜드의 개성과 취향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패션성의 가치는 타인과 구별되어 자신만의 독창적인 패션 감각을 표현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고자하는 현대인의 자기만족적 심리 욕구와 부합된다 하겠다.

2) 현대인의 익명적 가장성

인간은 아름다움에 대한 기본 욕구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통해 자신과 타인을 지각하고 평가하게 된다.⁴⁴⁾ 또 주어진 상황에 따라 자신을 표현하게 되며 신체 위에 부가되는 다양한 장식과 액세서리, 의복을 통해 자신의 심리적인 측면까지도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이웨어는 외모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방법 중 하나이며 자신의 심리적 변화를 가장할 수 있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아이웨어의 다양한 형태는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착용자 본래의 인상을 가장시키게 한다. 즉 계획된 의도에 의해 선택된 아이웨어이거나, 또는 의도하지 않은 우연에 의해 착용자의 인상은 변화됨

으로써 가장성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가면의 형태로 표현되는 아이웨어는 자기 본래의 모습을 숨긴 채 또 다른 자아를 표출하게 되는 변장의 의미로서 중성적인 이미지와 함께 가장된 익명성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가면을 통해 주술적 제의의 목적이나 초자연적 힘을 간직하고자한 것과는 다른 의미로서 극도로 익명화된 현대사회의 단면을 반영한다 하겠다. 특히 렌즈에 적용된 색상은 의상과 조화를 이루며 강렬한 이미지를 남기기도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있는 짙은 색상의 렌즈 착용 시 가장성의 가치를 반영하게 된다.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렌즈의 색상분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채로운 색상으로 의외의 이미지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표 3>과 같이 블랙 색상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던하고 세련된 패션이미지를 연출하기도 하지만 착용자의 감정을 인지할 수 없게 함으로써 모호하고 비밀스러운 가장성의 특성을 나타내며, 내면의 감정을 숨기며 가장된 자아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는 아이웨어 착용을 통해 숨겨진 자신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자하는 역설적 표현이라고도 해석된다 하겠다. 인간은 끊임없는 가장을 통해 환상을 갈구하기도 하고, 자신의 정체와 영혼을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장성에 대한 욕구는 과거 주술적 제의의 목적으로 착용된 가면에서부터 오늘날 가상공간을 통해 표현되는 허구의 실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아이웨어를 통해 표현되는 가장성의 가치는 패션이라는 코드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활용 가능한 미적 수단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개인의 감성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패션이미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겠다.

3) 일탈과 유희의 해체성

현대패션의 경향이 타인과 차별화되고자하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하여 자유로운 개성 연출의 장으로 전개되어 나가면서 보다 독특하고 새로운 디자인 및 연출방법을 추구하게 되었다. 특히 토털패션의 경향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패션 액세서리에 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패션뿐 아니라 액세서리 역시 극단적인 형태의 변형과 장식 등 변화를 통해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한 과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아이웨어에도 반영되어 디자이너의 실험정신과 개성을 표현한 해체성의 특성을 나타낸다. 해체주의 패션에서 의미의 불확정성은 착장방법에 대한 고정관념의 해체나 착용자에 따라 착장방법을 달리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아이웨어 형태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시키는 형태의 왜곡과 변형, 자유로운 연출방식 등은 해체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아이웨어의 소재나 장식적인 측면에서도 일상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소재의 범주를 넘어 이질적이거나 혼합된 소재의 사용을 통해 탈장르적인 해체의 특성을 반영하며 더 나아가 개성 연출을 위한 창조적 자율성의 가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해체적 특성을 반영한 아이웨어 디자인은 다채롭고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형태와 개성적인 표현 양상을 중심으로 소재의 이질적인 결합과 극단적인 대비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 아이웨어가 지닌 본연의 기능적 측면 대신 비정상적으로 변형된 형상, 이질적 소재와 장식, 의외의 색상은 부조화 속의 조화라는 놀라움을 나타내며 시각적인 충격을 유도함으로써 일탈된 유희의 감정으로 연결된다고 하겠다. 즉 과거에 존엄과 위엄, 지식의 표상으로 존재했던 아이웨어가 해체적 패션의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강한 인상과 충격을 전달하고 해체적 유희의 이미지로 전환되어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시각적 충격은 기존 패션 질서에서 벗어난 자극제로서 일탈된 미의 가치를 반영하며 보다 신

선한 새로움을 느끼게 하였다. 즉 기존 상식에서 벗어난 아이웨어의 해체적 특성은 일탈과 유희로서 아이웨어에 대한 새로운 조형의미를 창출시켰으며 고정된 관습을 거부하고 왜곡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하는 현대인의 일탈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IV. 결론

인간의 오랜 역사와 함께 아이웨어는 보고자 하는 일차적인 욕망, 타인에게 보여 지는 자신의 이미지, 더 나아가 패션이라는 범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화를 보이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아이웨어는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패션 소품이자 액세서리이며, 패션트렌드를 선도하는 수많은 디자이너의 컬렉션 무대에서도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도구로 표현되고 있다.

본 연구는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아이웨어의 외적 경향과 특성을 고찰하였고,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8S/S부터 2012F/W까지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아이웨어의 형태는 안경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자유형, 가면형, 고글형, 혼합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경형에서는 원형, 사각형, 다각형, 자유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림의 소재는 플라스틱 소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무테, 금속, 혼합 소재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렌즈 소재는 유리나 플라스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렌즈가 없는 경우, 가면의 형태로 원단을 사용한 경우의 순으로 나타났다. 림의 색상배합은 단색으로 구성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무테로 렌즈의 색상만으로 이미지를 전달한 것, 2가지 색의 구성, 다양한 색상의 혼합이나 문양의 구성, 3가지 색의 구성 순으로 나타났다. 렌즈의 색상배합 역시 단색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라데이션 효과를 나

타낸 것, 2가지 색상의 렌즈로 구성된 경우의 순으로 나타났다. 렌즈 색상은 화려한 원색의 색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블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이웨어를 구성하는 다양한 색상과 소재, 형태 등으로 장식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지만 테나 렌즈에 화려한 비즈 장식이나 부가적인 장식물을 더해 독특한 장식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외적 경향을 나타내는 아이웨어가 지닌 가치는 눈의 보호와 관련된 기능과 실용성이다. 이는 안경이 탄생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고유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 아이웨어는 존엄과 위엄, 부의 상징물로서 가치를 지닌 아이템으로 여겨졌다면 현대패션에 있어서는 강한 개성을 연출하는 패션 아이템으로 표현되어 변화된 가치를 나타낸다. 패션컬렉션 나타난 아이웨어의 특성은 첫째, 현대적 심미성을 지닌 패션성의 가치 부각이라 하겠다. 토털 패션의 경향이 일반화된 오늘날 아이웨어는 부수적인 액세서리인 동시에 옷과 같이 착용되다는 개념에서 시선을 주목시키는 아이템이자 강한 개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작용하였다. 특히 색상과 소재, 장식의 변화를 통해 독특한 디자인으로 표현되는 아이웨어는 착용자의 개성과 감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패션의 본질 그 자체로서 패션성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현대인의 익명적 가장성의 의지 표현이다. 아이웨어의 다양한 형태는 착용자의 모습을 본래와 다른 인상으로 가장시킨다. 특히 가면형태나 짙은 컬러의 렌즈를 통해 착용자의 감정을 모호하게 하는 가장이라는 특성을 나타내며, 이는 내면의 감정과는 다르게 가장된 자아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해체적 특성을 통한 일탈과 유희의 가치를 반영하였다. 고정관념을 해체시키는 아이웨어 형태의 왜곡과 변형, 자유로운 연출방식, 이질적인 소재와 장식 등은 일

탈과 유희로서 해체의 특성을 반영하며 더 나아가 창조적 자율성의 가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아이웨어가 기능적이고 장식적인 액세서리라는 개념을 넘어 독특한 디자인으로 새로운 패션의 이미지를 창조하며 현 시대가 요구하는 미적가치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아이웨어는 본다는 차원을 넘어서 독창적인 이미지 연출 및 새로운 미적가치 추구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아이웨어뿐만 아니라 기타 액세서리 디자인이나 연출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또 다른 독창적인 이미지 연출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가 실물 자료가 아닌 사진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함에 따라 구체적인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점을 한계점으로 밝히며, 향후 다양한 패션 액세서리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이경순, 김희섭, 박영신 (2011). 패션 스타일링을 위한 코디네이션, 서울: 교문사, p.68.
- 권경주 (2009). Eyewear의 컬러 트렌드 분석 및 제안, 한국색채학회지, 23(3), p.3.
- 이원진, 성덕용, 육도진, 강성수, 장윤석, 박상철, 박혜정, 신호순, 전영기 (2004).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선글라스에 관한 연구, 한국안광학회지, 9(1), pp.125-133.
- 장학규, 강민수 (2002). 안경디자인을 위한 형태적, 기능적 분석에 관한 연구, 디자인과학연구, 5(1), pp.41-48.
- 김대수 (2007). 안경디자인에 관한 연구: 신세대 여성용 패션 선글라스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69.
- 김혜경 (2003). Eyewear Design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92.
- 민지영 (2005). Fashion Eyewear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27.
- 이길순 (2009). 하우스브랜드 안경분석과 안경디자인의 명품화 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1-245.
- 박승온 (2004). Eyewear design에 있어 형태와 기능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안광학회지, 9(2), pp.371-380.
- 이경희 (2012. 5). 안경의 발전과 디자인의 변천, 한국의류산업학회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pp.222-226.
- 권경주. 앞의 책, pp.1-10.
- 이현주 (2008). 퍼스널컬러 이미지에 따른 안경 디자인 컬러 연구,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지, 4(1), pp.89-99.
- 정형호 (2005). 21C 안경 디자인의 조건과 Total Fashion 트렌드 고찰, 한국안광학회지, 10(1), pp.17-25.
- 김대수, 앞의 책, p.5.
- 강현식 (2007). 안경학개론, 서울: 신광출판사, pp.548-549.
- 민지영. 앞의 책, pp.14-15.
- 김대수. 앞의 책, p.7.
- 위키백과(검색어: 안경), 자료검색일 2012. 10. 1. <http://ko.wikipedia.org/wiki/안경>
- 이현숙, 이정숙 (2002). 패션과 액세서리, 서울: 신성, p.93.
- 민지영. 앞의 책, p.21.
- 이경순, 김희섭, 박영신 (2011). 패션 스타일링을 위한 코디네이션, 서울: 교문사, p.96.
- 이길순. 앞의 책, p.51.
- 이현주. 앞의 책, p.94.
- 신호정 (2004) 패션코디, 서울: 시공사, p.180.
- Richard, C. (1980). 안경의 문화사, 김하정 옮김 (2003). 서울: 에디터, p.11.
- 이현숙, 이정숙. 앞의 책, p.91.
- 금복현 (1997). 옛 안경과 안경집, 서울: 대원사, p.49.
- Richard, C. 앞의 책, p.25.
- 금복현. 앞의 책, pp.49-52.
- 박승온. 앞의 책, p.372.
- 이경희. 앞의 책, p.223.
- 박승온. 앞의 책, pp.374-375.
- Richard, C. op.cit., p.79.
- 권경주, 앞의 책, p.2.
- Richard, C. op.cit., p.148.
- 위의 책, p.148.
- 이경희. 앞의 책, p.223.
- Wikipedia(검색어: Sunglasses), 자료검색일 2012. 10. 1. <http://en.wikipedia.org/wiki/Sunglass>
- 선글라스의 역사 (2012. 10. 1). 대한안경사협회, 자료검색일 2012. 10. 1. <http://www.optic.or.kr/>
- 강현식 (2009. 11. 30). 선글라스의 탄생, 아이앤지닷컴, 자료검색일 2012. 10. 1. <http://www.eyeng.com/yellow/?Tmo de=view&m=1&no=2749>
- Ingrid, L. & Beate, S. (1999). 패션의 클래식, 황현숙 옮김 (2001). 서울: 예경, p.102.
- 김선영 (2005). 머프(Muff)의 사적고찰과 미적 가치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3(4), p.523.
- 이미림 (2011. 9. 1). 선글라스 열전, Harper's Bazaar Korea, p.239.
- 장미숙, 양숙희 (2003). 공포영화에 나타난 악마의 유형과 특수 분장 기법에 대한 연구, 복식, 53(8), p.33.

A Study on Eyewear Featured in Fashion Collections

Kim, Sun Young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reciate the value of eyewear in modern fashion in a new way in terms of total styling and help to produce unique personal fashion images for the future by examining the appearance and characteristics of eyewear in fashion collections. Literature review was performed about the concept and chronological change of eyewear through precedent studies and related material. Analysis was also carried out for 303 pieces in the four global women's collections from 2008 S/S through 2012 F/W. The results are as follows. For eyewear shape, glass type was the most common, and then, free type, mask type, goggle type, and mixed type, in order. The preference for glass type eyewear shapes appeared in the order of round, square, polygon, and free shape. For the rim material, plastic was used most, followed by rimless, metallic, and hybrid material. Either glass or plastic was the most common for the lens material. And then, in case of eyewear with no lenses, mask-shaped stockings were used. Monochrome was the most frequent color tone arrangement for rims, followed by no rim and just lens color for image expression, dual colors, multiple colors or patterns, and triple colors. As for the color arrangement of lenses, monochrome came first, followed by gradation effect, and dual colors. Though splendid primary colors were shown for lenses, black was given the most weight. It could be said that eyewear reflects fashionable values, disguise values, and dissolution values in modern fashion.

Key words: eyewear, fashionable values, disguised values, dissolution values